

'군산형 일자리' 다시 닷 올린다

이달중 정부 상생형 일자리 공모 신청
군산·새만금 일대 전기차 클러스터
2024년 14만대 생산·1700명 고용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30일 ㈜명신 군산공장을 방문해 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애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정부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할 계획이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전기차동차 생산업체인 명신컨소시엄을 주축으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와 부품업체 코스텍이 참여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업체들은 5172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에 전기차 14만4000여대를 생산하고 17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개발 및 설비 사용, 원자재 공동 구매, 부품업체 수평 계열화도 추진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애초 지난 6월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주축 기업인 명신의 생산계획이 어긋리면서 지연됐다. 명신은 내년에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바이톤의 전기차 5만대를 위탁 생산할 방침이었으나 바이톤의 공동 중단으로 차질을 빚었다. 전북도 등이 신청한 모델은 정부의 현장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와 군산시, 명신 등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30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명신 군산공장 방문해 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애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산 사태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회복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통한 미래 산업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전기차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군산과 새만금 일대가 국내 최대 전기차 클러스터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한국 최초 사상지 '개벽', '다시 개벽'으로 재탄생

원광대 소장학자들 주축 복간
1920년 창간후 72호 발간 폐간



우리나라 최초 사상지로 알려진 '개벽'이 원광대학교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한 소장학자들에 의해 '다시 개벽'을 제호로 복간됐다. <사진> 원광대학교는 원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박길수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은 조성환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편집자문위원인 박맹수 원광대 총장의 지원을 받아 사상지 '개벽'을 '다시 개벽'으로 복간했다고 6일 밝혔다. '개벽'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천도교 청년들에 의해 창간돼 1926년 72호 발간을 끝으로 폐간됐다.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계간 '다시 개벽'(모시는사람들)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다시 개벽'은 현재 새로운 세상을 개벽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잊혀진 전통의 재발견과 신격화된 서양의 재해석, 굿어진 세대를 잇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책의 구성은 '다시'의 철학을 반영해 잊혀진 한국학을 새로 읽는 '다시 읽다', 원리와 대화를 나누는 '다시 듣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다시 쓰다', 청년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다시 열다', 개벽교전을 번역

해서 소개하는 '다시 있다'와 같은 주제로 구성됐다. 또 겨울은 '서구중심주의 비판', 봄은 '한국사상 발굴', 여름은 '지구인문학 모색', 가을은 '현대철학의 모험' 등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 계절마다 주제를 반복해서 다룰 예정이다. '다시 개벽'의 제호는 30대인 안마노 디자이너 작품이며 주역들은 20·30대 소장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새 역사는 늘 청년들이 열었다. 기대가 크다"며 "다시 개벽'의 사상적 도전과 문학적 모험이 한국 인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 내장산관광단지 'JB금융 통합연수원' 첫삽



정읍시와 JB금융그룹은 지난 4일 내장산리조트 관광단지에서 통합연수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3만4266㎡ 부지상 7층 규모
500억 들여 2022년말 완공

정읍시와 JB금융그룹은 지난 4일 내장산리조트 관광단지 내 건축부지에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을 투입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약 3만426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말 완공 목표이며, JB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인재 양성의 요람일뿐만 아니라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수원 부지는 내장산국립공원과 용산저수지에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존하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특히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인접해 있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에서 5분 거리이며,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정읍시는 연수원이 완공되면 JB금융그룹 직원과 가족들이 연수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연수원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방세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장호에서 용산호를 아우르는 생태·문화·관광 체험 벨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용산호 분수, 수변둘레길, 천사하이어즈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군,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고창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인증으로 고창군은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고창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임신부·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직원·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2년 연속 전북도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도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익산시는 전북도 주관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투자·고용 이행, 신규 고용규모 등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동 상황에 대해 평가해 최종 결정됐다. 익산시는 투자유치 활동 건수와 투자이행률 분

야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익산시는 제3·4일반산업단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에 올해 협소자계약, 이너엔 등 10개 업체를 포함한 총 200여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또 7000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3·4일반산업단은 분양률 85%, 88%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더스계약, 에이치에스메타리얼즈, 라온에이치앤씨 등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아듀 코로나 2020 예술로 위로 받다

모두가 분투했던 한 해, 예술을 만나는 애뜻한 순간
코로나 블루 털고 송년은 문화와 함께
해님이, 해동이 가는 길에 만나는 미술관

기획: CULTURE 2020
되돌아본 올 한 해 문화계

문화를 품은 건축물④
소박한 작품 담은 담백한 미술관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

클릭, 문화현장⑥
예술 온기 전하고, 장작 밀어주는 에세이 산실
북한문화공간 '김넷과'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⑥
칸딘스키, '불협화음'에서 추상화 돌파구 찾다

예향 초대석

‘미술대중화 아이콘’ 미술사가 양정무
“우리 안의 미술적 본능 깨우시다”

문화 화제
남은 집의 이유있는 변신
갤러리가 된 주택들

송년기획-재즈에 빠진다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재즈에 몰들어 보세요

문화 트렌드
문화 콘텐츠 집어삼키는
블랙홀, 게임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헤르만 헤세 ‘데미안’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금기에 도전하는 연예인들

유현준의 도시건축⑥
영화 속 공간, 계급 차의
은유가 숨어있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신작 극영화 ‘매미소리’로 돌아온 감독 이충렬
국방의무 후 2021시즌 복귀 심동섭·김유신

화제의 전시
광주YMCA 100년 역사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영남
역사·전투 속으로
경양 氣찬 여행
꿈의 보물 찾아가는 길
대령감·박지, 환우